

‘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’ 발간

- 혁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,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속 포용·환경 과제

□ 국가데이터연구원(원장 김진)에서는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이행 현황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『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』을 발간하였다.

※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는 사람(People)과 지구(Planet)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('15.9월)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

□ 본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'2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,

○ 국가데이터연구원 누리집(<https://mods.go.kr/dsri>) '연구간행물'과 SDG 지표누리(<https://www.index.go.kr/sdg>) '정보자료실'에서 제공하고 있다.



□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역량과 경제·보건 수준은 OECD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SDG 5대 영역(사람·지구·번영·평화·협력) 전반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며 다수 지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.

○ 다만 상대적 빈곤, 성별 돌봄 부담, 기후·생물다양성 대응 등 사회적 포용과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<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6 보고서 수록 지표의 개선·악화 현황 >

부문	계	최근 변화			중장기 변화		
		개선	악화	기타	개선	악화	기타
사람(People)	22 (100%)	13 (59%)	5 (23%)	4 (18%)	16 (73%)	5 (23%)	1 (5%)
지구(Planet)	20 (100%)	16 (80%)	1 (5%)	3 (15%)	15 (75%)	5 (25%)	0 (0%)
번영(Prosperity)	20 (100%)	11 (55%)	4 (20%)	5 (25%)	16 (80%)	2 (10%)	2 (10%)
평화(Peace)	5 (100%)	3 (60%)	1 (20%)	1 (20%)	4 (80%)	1 (20%)	0 (0%)
협력(Partnership)	4 (100%)	2 (50%)	2 (50%)	0 (0%)	3 (75%)	1 (25%)	0 (0%)
합계	71 (100%)	45 (63%)	13 (18%)	13 (18%)	54 (76%)	14 (20%)	3 (4%)

* 중장기 : 대부분 지표는 '11년과 최근년간의 대비이며, 일부 지표는 '99, '00, '06, '10, '12, '13, '14, '15, '16, '17, '18, '19년 대비임

** 기타 : 복수의 세부지표들 간 개선과 악화가 섞여 있거나, 시계열 자료 부족으로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및 각 연도의 값이 동일한 경우

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수록 지표 현황

※ 앞부분은 최근변화, 뒷부분은 중장기변화(개선: 😊, 악화: 😞, 기타: 😐)



□ 국가데이터연구원은 품질 높은 통계와 데이터가 ‘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(Leave no one behind)’는 SDG의 핵심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.

※ 분석대상 선정에 따른 유의사항

- (선택지표) 유엔 SDGs 251개(중복 제외 시 234개) 지표 중 71개 지표를 선정하여 작성
 - 보고서는 17개 목표별로 매년 분석하는 지표와 2~3년 주기로 분석하는 지표들로 구분하여 작성 중이며, 보도자료는 목표별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작성
- (분석자료) '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표된 데이터 활용, 보도 시점에서 일부 지표 데이터 현행화
- (분석결과) 17개 목표를 SDGs의 5P 영역, 즉 사람(People), 지구(Planet), 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, 협력(Partnership)으로 분류하여 요약 제시함

담당 부서	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	책임자	실 장	최바울 (042-366-73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의영 (042-366-7319)

한국의 SDG 이행 현황 주요 결과



가. 사람(Peopl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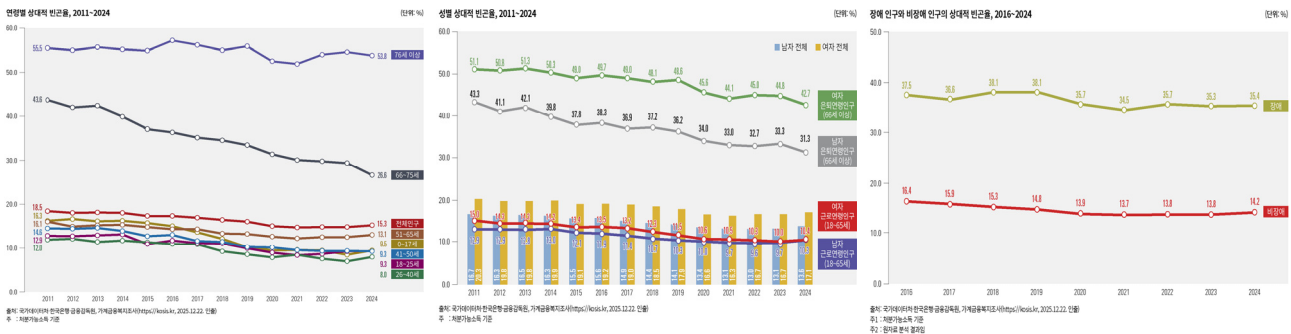
상대적 빈곤율은 감소세 멈추고 다시 상승('23년 14.9%, '24년 15.3%)
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청년과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

□ '24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*은 15.3%로 '11년(18.5%)에 비해 개선되었으나, 전년(14.9%)에 비해 0.4%p 증가하였고, 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은 편('22년 기준)

* 전체 인구 중 빈곤선(균등화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%, 연간 1,966만원) 이하 인구의 비율

○ 특히, 은퇴연령 인구(66세 이상)의 빈곤율은 37.7%이며, 여성 은퇴연령 인구 빈곤율은 42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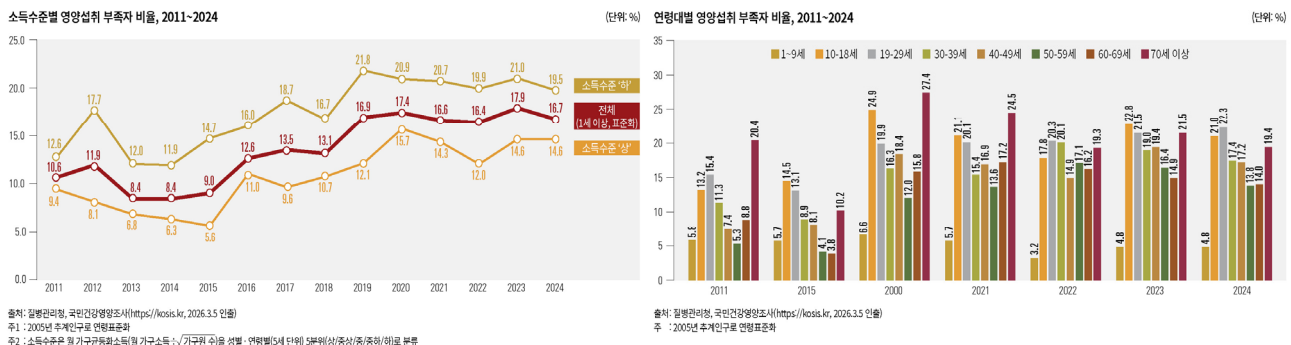
○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35.4%로 비장애 인구(14.2%)의 약 2.5배



□ '24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6.7%로 전년(17.9%) 대비 1.2%p 감소

○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5%p 줄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도 다소 감소

○ 19~29세(22.3%), 10~18세(21.0%) 및 70세 이상(19.4%) 연령층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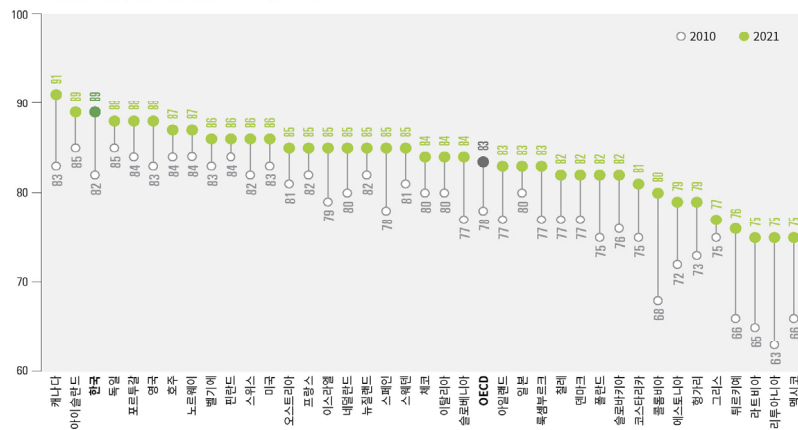
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는 89점으로 OECD평균(83점)보다 높으나, 보건의료 인력은 인구 천 명당 9.3명으로 OECD평균(14.4명)보다 낮음

-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*는 '21년 89점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, '19년(87점)에 비해 2점, '10년(82점)에 비해 7점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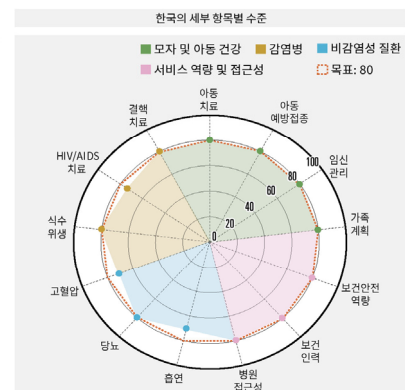
* Universal Health Coverage Service Coverage Index(UHC SCI):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질의 포괄적 보건 서비스 이용 보장 여부를 4대 영역 14개 지표로 산출

- '21년 한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기준치(80점)를 넘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, 흡연(70점)과 고혈압(71점), 비감염성 질환 영역(76점)은 개선 필요

OECD 국가별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(UHC SCI), 2010, 2021



출처: UN, SDG Indicators Database(<https://unstats.un.org/sdgs/dataportal>, 2025.9.20. 인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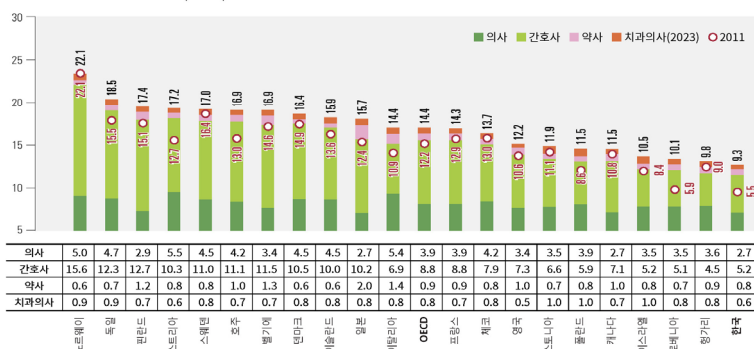
* 14개 지표 중 '감염병' 영역에 ③말라리아 예방 통계는 사하라 이남 말리리아 풍토병 지역에만 해당되는 통계로 한국자료 없음

- '23년 인구 천 명당 주요 보건의료 인력*은 9.3명으로 '11년(5.5명)에 비해 3.7명 증가하였으나, OECD 평균(14.4명)에는 여전히 미달

* 의사(한 의사 포함), 간호사, 약사, 치과의사

- 인구 천 명당 의사(한 의사 포함) 27명, 간호사 5.2명으로 OECD 평균(의사 3.9명, 간호사 8.8명)보다 각각 1.2명, 3.6명 적음
- 인구 천 명당 특·광역시시는 의사(한 의사 포함) 3.4명, 간호사 6.4명인데 비하여, 도 지역은 의사 2.1명, 간호사 4.3명으로 지역 간 격차 존재

OECD 국가별 보건의료 인력 밀도, 2011, 2023



출처: OECD, OECD Data Explorer(<https://data-explorer.oecd.org>, 2025.9.23. 인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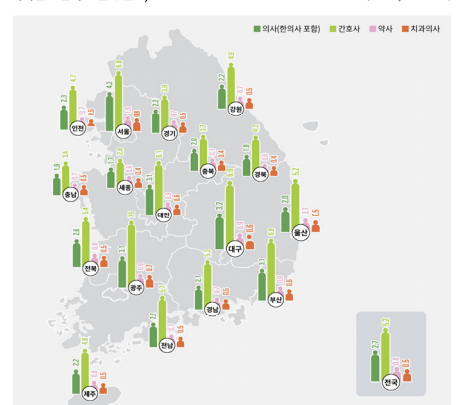
주1: 국제비교의 기준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(한 의사 포함), 간호사, 약사, 치과의사를 제시함

주2: 임상 활동 중인 인력이며, 국제 기준에 따라 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됨

주3: 의사, 간호사, 약사, 치과의사 중 한 직종이라도 제시되지 않은 17개국(일본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그리스, 아일랜드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멕시코, 네덜란드, 뉴질랜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스페인, 튀르키예, 미국)은 제외함

주4: 일본, 스웨덴, 벨기에(간호사), 덴마크(약사)는 2022년, 프랑스(간호사)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, 일본, 스웨덴, 캐나다(약사)는 2012년, 프랑스(간호사)와 이탈리아(치과의사, 약사)는 2013년 자료를 사용함

(단위: 1,000명당 명)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밀도, 2023

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, 지역별의료이용통계(<https://kosiskr>, 2026.1.2. 인출)

주1: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(한 의사 포함), 간호사, 약사, 치과의사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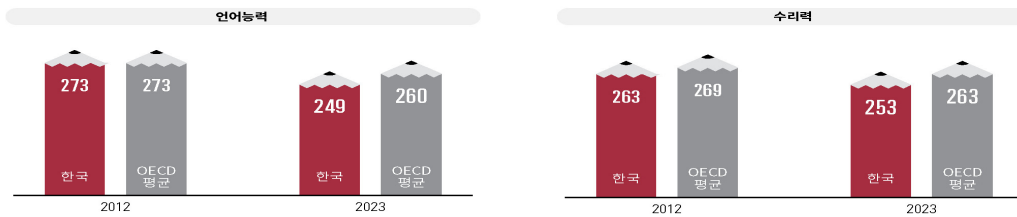
주2: 인구 1,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수이며, 추계인구를 사용함

문해력 점수가 OECD 평균에 비해 학생들은 높으나, 성인은 다소 낮음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년 대비 상승, ICT 역량 보유율 전반적 상승

- '23년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(249점)과 수리력(253점) 모두 '12년(273점, 263점)에 비해 하락하였고, OECD 평균(언어 260점, 수리 263점) 보다 다소 낮은 수준
- '22년 한국 학생들은 읽기(515점)와 수학(527점) 모두 '18년에 비해 1점씩 상승하였으며, OECD 평균(476점, 472점)보다 높음

* 학생은 OECD 주관 약 3년 주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(PISA) 결과, 성인은 10년 주기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(PIAAC)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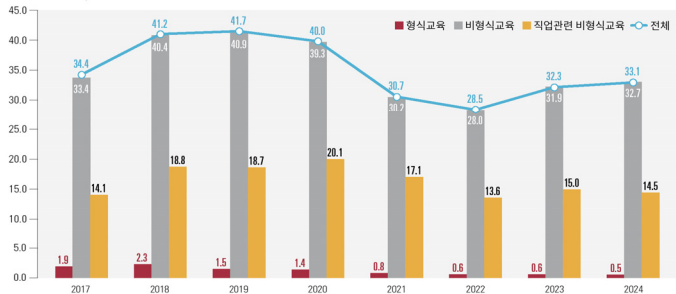
국제성인역량조사(PIAAC) 성인 문해력 점수, 2012, 2023



- '24년 만 25~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.1%로 전년(32.3%) 대비 0.8%p 상승
-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최고치인 41.7%에 비해 낮은 수준
- 중졸 이하 인구와 대졸 이상 인구 사이의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는 '24년 17.8%p로 '20년(23.1%p)에 비해 감소

평생학습 참여율, 2017~2024

(단위: %)



출처: 한국교육개발원,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(https://kess.vedi.net, 2025.8.25. 인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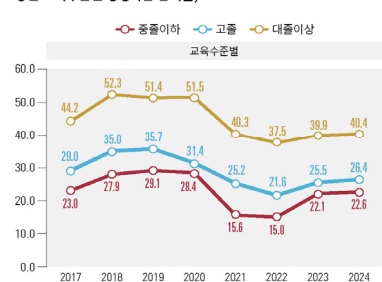
주1: 2017년부터 조사 대상이 만25~64세 인구에서 만25~79세 인구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

주2: 2020년 기준은 전년도 7월부터 조사 연도 6월까지 1년용 조사하였고,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용 조사함

주3: 형식교육은 초·중·고등학교나 대학(원)과 같이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, 비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

성별·교육수준별 평생학습 참여율, 2017~2024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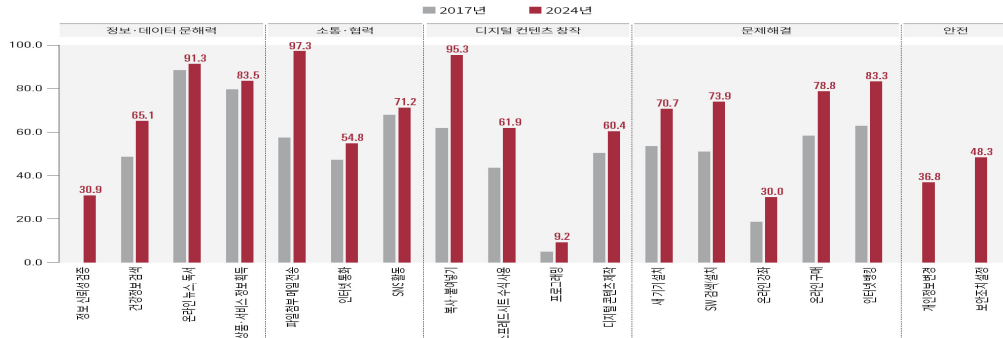


- '24년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 이상 수준의 ICT 역량 보유율은 '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은 디지털 안전 영역(25.1%)임

* ICT 역량 보유율은 최근 3개월 내 ICT 관련 활용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수행자 비율로 산정되며, 활동 수에 따라 기초 및 고급 수준으로 구분

정보통신기술(ICT) 역량 유형별 보유율, 2024

(단위: %)



출처: ITU, DataHub(https://datahub.itu.int, 2025.12.16. 인출)

주1: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ICT 활동을 수행한 비율로 측정됨

주2: 2024년도 한국 수치가 없는 경우 나타내지 않음



양성평등의 법적 기반은 OECD 상위권이나, 고용·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2.8배 많은 시간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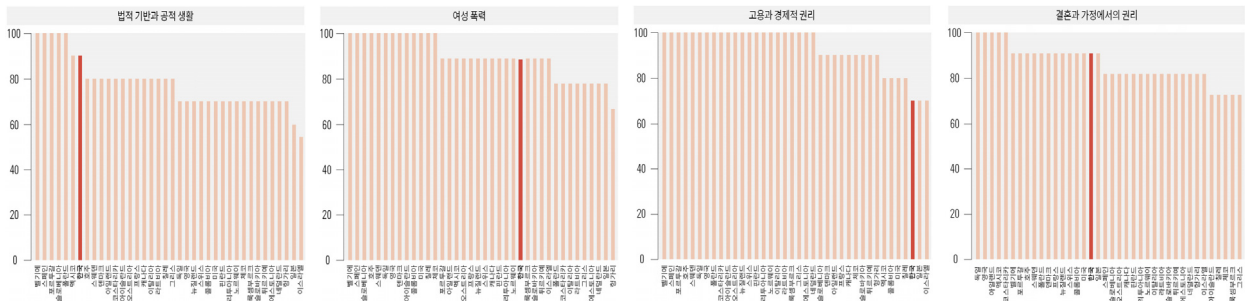
□ 성평등 증진 법적 체계 마련여부 평가에서 OECD 38개국 중 한국은
①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(90점)은 상위권이나, ③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(70점)은 최하위권

○ ②여성을 향한 폭력(89점)은 중위권, ④결혼과 가정에서의 권리(90점)는 중상위권

* (SDG 지표5.1.1) 정부가 성평등을 증진하고 비차별을 촉진·이행·모니터링하기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를 상기 네 가지 영역(①②③④)으로 구분하고 그 성취도를 평가

OECD 국가별 성평등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 정도, 2024

(단위:점)



출처 : UN, Women Data Hub(<https://data.unwomen.org/data-portal>, 2025.12.21. 인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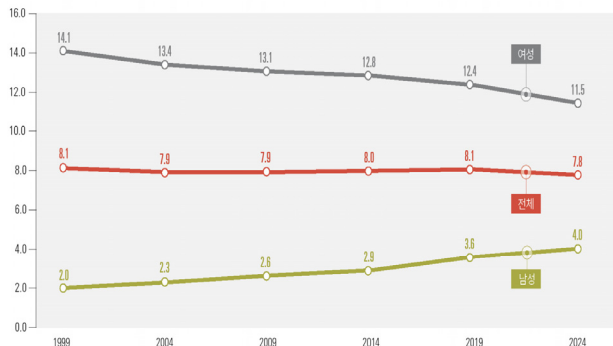
□ '24년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에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.5%, 남성은 4.0%를 사용해 여성이 남성보다 2.8배 더 많은 시간 사용

○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(11.9%)가 남편(4.1%)의 2.9배, 아내가 외벌이인 가구에서도 아내(11.1%)가 남편(7.4%)보다 1.5배 긴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

○ '99년 7.0배에서 완화되었으나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

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중, 1999~2024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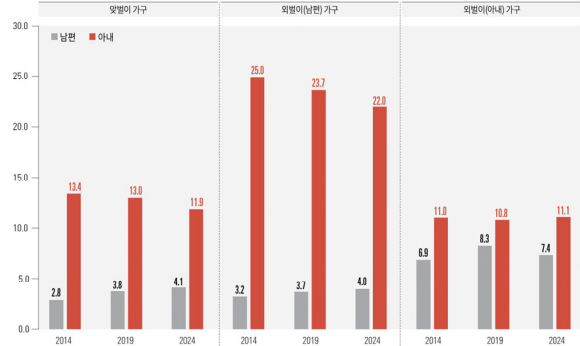


출처: 국가데이터센터, 성별시간조사(www.kosis.kr, 2025.12.21. 인출)

주 : 10세 이상 남녀의 하루 중 가정 관리(가사)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(돌봄) 시간의 비중임

가구특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중, 2014~2024

(단위: %)



출처: 국가데이터센터, 성별시간조사(www.kosis.kr, 2025.12.21. 인출)

주 : 10세 이상 남녀의 하루 중 가정 관리(가사)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(돌봄) 시간의 비중임

나. 지구(Planet)



물 서비스 및 수질 매우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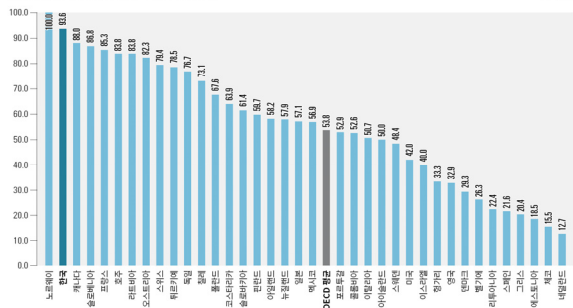
GDP당 국가자원소비량 0.542kg/달러('17)→0.466kg/달러('22) 감소

- '24년 하천의 88.7%, 호소의 59.2%, 지하수의 96.6%에서 법정 수질 목표 기준 달성하고 있으며, 하천, 호소, 지하수를 통틀어 '좋은 수질'을 달성한 수계의 비율은 '23년 93.6%로 OECD 2위 수준

*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과 호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먹는물, 생활용수, 농·어업용수, 공업용수 등 용도별로 수질 기준을 정하여 관리

- 상수도 보급률은 99.5%, 하수도 보급률은 95.6%로 안정적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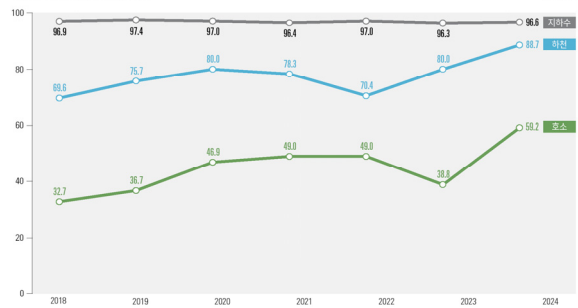
OECD 국가별 '좋은 수질'을 가진 수역의 비율, 2023



출처: UN, SDG Indicators Database(https://unstats.un.org/sdgs/dataportal), 2026.2.24. (단위: %)

* 하천, 호소, 지하수를 통틀어 산정하는 전체 수역 기준

수질 목표기준 달성률, 2018-2024



출처: 기후변화·환경정책, 한국 환경정책 목표기준 평가결과: 기후변화·환경정책, 지하수조사연보 20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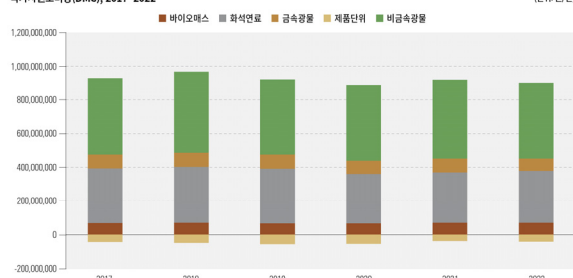
* 하천과 호소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목표기준(생물학적 항목, 하천은 BOD, 호소는 TOC)에 대한 관역별 달성률이고,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별 적정률임

- 국가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천연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국가자원소비량(DMC)*이 '17년 8.9억 톤에서 '22년 8.6억 톤으로 감소

*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: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천연자원의 총량으로 국내 자원채취량에 직접 수입량을 더하고, 직접 수출량을 제하여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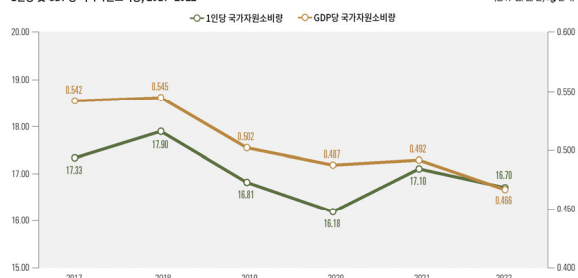
- '22년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(16.7톤) 및 GDP당 국가자원소비량(0.466kg/달러) 모두 '17년(17.3톤, 0.542kg/달러)에 비해 감소
- 유엔환경계획이 추정한 한국의 '24년 1인당 소비량(18.25톤)은 OECD 평균(18.89톤)과 유사한 수준이며, '23년 GDP당 소비량(0.495kg/달러)은 OECD 평균(0.665kg/달러)보다 낮아 자원 소비의 경제적 효율이 양호한 편

국가자원소비량(DMC), 2017-2022

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「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」

1인당 및 GDP당 국가자원소비량, 2017-2022

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「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」

* 연방인구조사(미국인구조사국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, USG)를 기준으로 2015년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임

‘18~’24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·실종자의 68.7%는 폭염이 원인
 ‘15~’24년간 직접적 경제적 손실 피해액 60.5%가 호우에 의해 발생
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추세, 제2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마련(‘25.11월)

□ '24년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·실종자 수는 총 121명(인구 십만명당 0.24명)으로 최근 증가, 직접적 재산 피해액**은 9,107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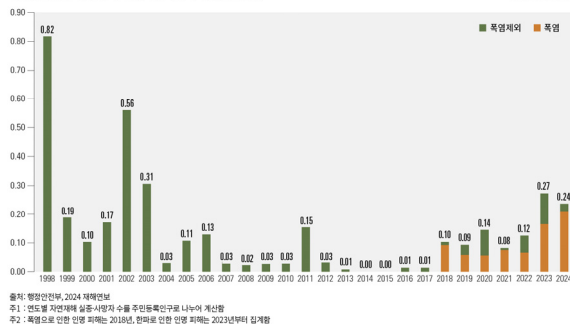
* '04년부터 '22년까지 0.15명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'23년(0.27명)부터 증가

** '15년에서 '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5,191억 원('24년 환산가격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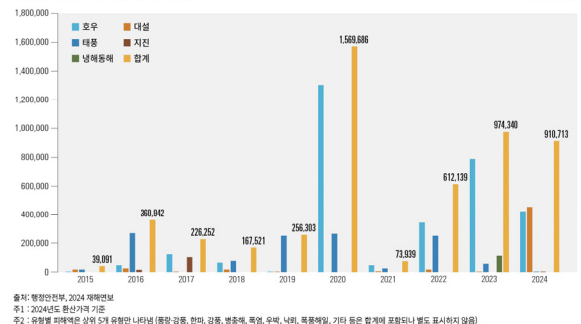
- '18년부터 '24년 기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·사망 중 68.7%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이며, '23년 85명, '24년 108명으로 역대 최고치 연속 경신
- '15년에서 '24년 기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 피해액의 60.5%가 호우, 23.3%가 태풍, 10.3%가 대설로 인한 피해임

*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비율은 0.03%('22년)로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

인구 10만 명당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·사망자 수, 1998~20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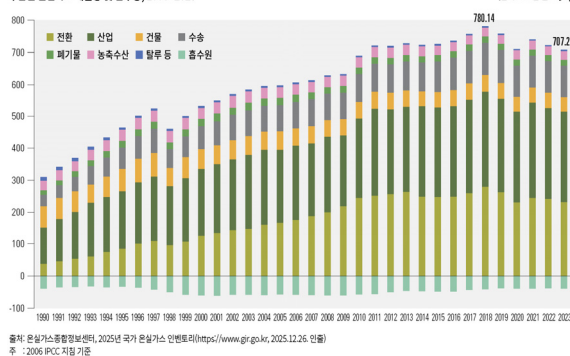


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, 2015~20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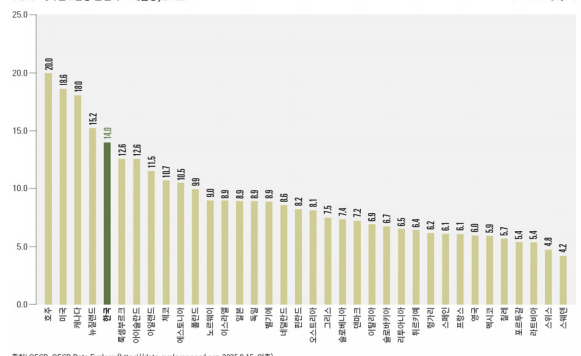


- '23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 720만 톤(CO₂ eq)으로 '18년(7억 8,014만 톤)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이며, 전년(7억 2,203만 톤)에 비해 2.1% 감소
- OECD 국가 중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호주, 미국, 캐나다, 뉴질랜드에 이어 **5번째로 많음**('22년 기준)

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, 1990~2023



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, 2022



- 한국은 '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'18년 대비 53~61% 감축하는 제2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마련('25.11월)하였으며,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른 5종 보고서* 모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완료

* 격년투명성보고서(BTR),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, 장기저탄소발전전략(LT-LEDS),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(NAP), 기후 적응 보고



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,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
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(58.9%) OECD 평균 상회
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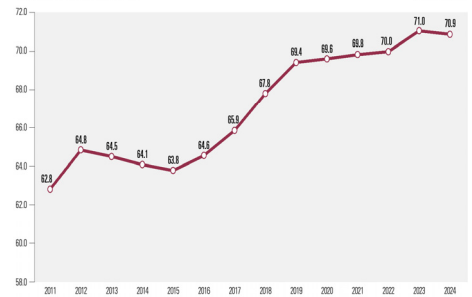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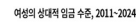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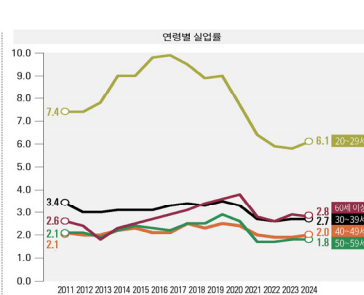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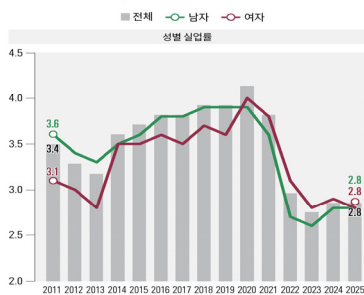
- '25년 실업률은 2.8%로 4년 연속 낮은 수준*을 유지하고 있으며, '24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2만 5,156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 유지

* ('22년) 2.9%, ('23년) 2.7%, ('24년) 2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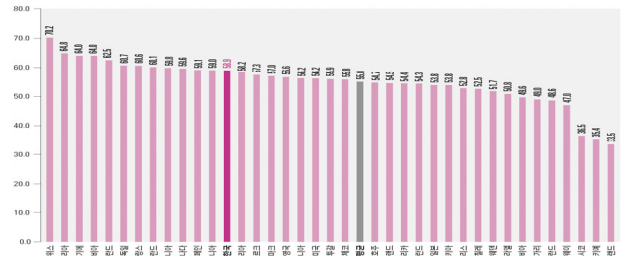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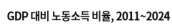
- 남성과 여성 실업률이 동일하게 2.8%이며, 연령대별로는 20대(61%)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, '20년(9.0%)에 비해 2.9%p 감소
- '24년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0.9%이며, 직종별로는 관리직 임금이 전체 평균의 314.7% 수준으로 가장 높고, '11년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
- 프랑스, 영국, 미국, 독일,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*이며, 시간당 임금은 낮으나, '11년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(33.9%)

* ('24년) 프랑스 7.4%, 영국 4.4%, 미국 4.0%, 독일 3.4%, 일본 2.5%, 한국 2.8%

** (24년, ppp) 독일 52.1달러, 미국 46.2달러, 영국 42.1달러, 프랑스 40.7달러, 일본 30.6달러, 한국 27.3달러



- '24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8.9%로 OECD 평균(55.0%) 보다 높음
- '11년에서 '17년까지 55.5~57.1%였으나, '18년부터 상승하여, '20년(59.8%) 최고치를 기록한 후 58~59%대 유지



- '24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재해율은 0.67%로 산재보험 확대 등에 따라 '17년(0.48%)에 비해 증가한 반면, 사망만인율(0.98₁₀₀₀)과 사고성 사망만인율(0.39₁₀₀₀)은 감소
-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'24년 전체 재해자의 38.2%, 재해 사망자의 52.8% 차지

라. 평화(Peace)와 협력(Partnershi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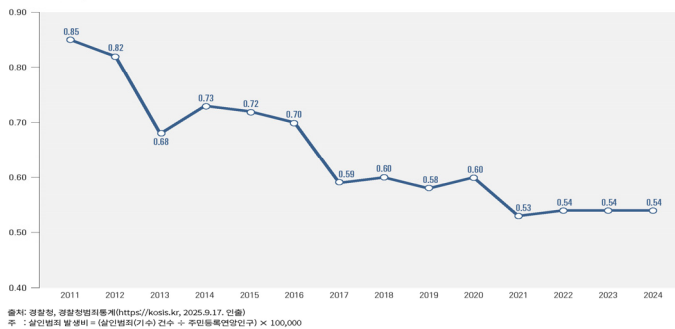
**‘24년 살인범죄 발생비 인구 십만 명당 0.54건으로 ‘11년(0.85)에 비해 감소
국민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은 ‘10년대에 비해 다소 감소
‘24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40.3억 달러**

- ‘24년 살인범죄(기수) 발생비는 인구 십만 명당 0.54건으로, ‘11년(0.85건)에 비해 37.0% 감소하였으나, ‘22년부터 0.54건으로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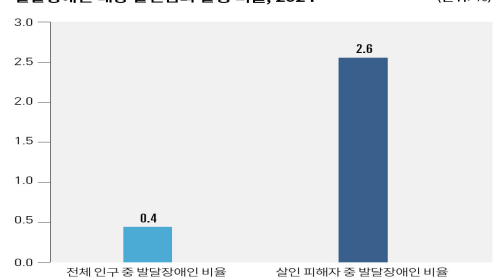
* ‘23년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한국(0.48명)이 일본(0.23명)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

- 살인범죄의 26%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일어나 인구(전체 인구 중 0.4%) 대비 높은 비율

살인범죄 발생비, 2011~2024



발달장애인 대상 살인범죄 발생 비율, 2024



- 국민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 수준은 ‘24년 25점(5점 만점)으로 ‘10년대(27~29점)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, 특히 여성과 저학력·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남

-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‘24년 2.3점(4점 만점)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국회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2.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
- 의사결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의 비율은 ‘23년 38.7%로 OECD 국가 중 8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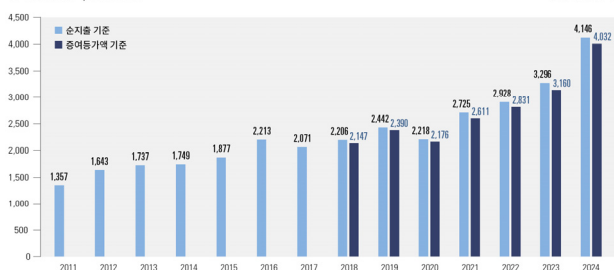
-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‘24년 한국의 ODA 규모(증여등가액 기준)는 전년(31.6억 달러) 대비 27.6% 증가한 40.3억 달러, GNI 대비 ODA비율은 0.21%로 사상 최고

* ODA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3위, 국민총소득(GNI) 대비 ODA 비율은 25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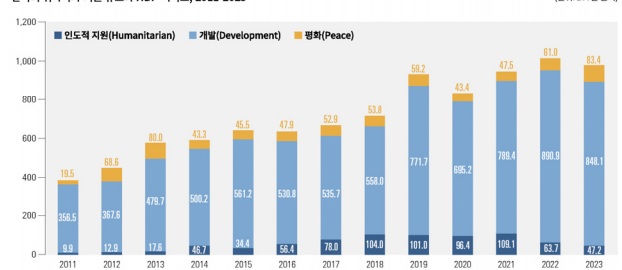
-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‘23년 9.8억 달러로 전체 양자원조(26.6억 달러)의 36.8%이며, 이 중 개발협력이 86.7%,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각 8.5%와 4.8%

* SDG 이행을 위한 개발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규모(총지출액 기준)는 전체 양자원조의 31.5%인 8.4억 달러로, GNI 대비 0.06%(‘23년 기준)

한국의 ODA 규모, 2011~2024



한국의 취약국가 지원 규모와 HDP 넥서스, 2011~2023



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

※ 각 지표별 자세한 내용은 「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보고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중장기 : 대부분 지표는 '11년, 일부 지표는 '99, '00, '06, '10, '12, '13, '14, '15, '16, '17, '18, '19년

** ~ : 복수의 세부지표들간 개선과 악화가 섞여 있거나, 시계열 자료 부족하여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및 각 연도의 값이 동일한 경우

사람(People)	중장기	전기	최근년	최근 변화	중장기 변화
1.2.1 상대적 빈곤율	18.5%	14.9%	15.3%	악화	개선
1.3.1 공적이전소득 수급률	47.8%	65.4%	65.8%	개선	개선
1.4.1 소득1분위 가구 저축액	1,713만원	2,310만원	2,394만원	개선	개선
1.b.1 소득1분위 가구 공적이전소득	380만원	646만원	679만원	개선	개선
1.a.1 GNI 대비 빈곤감소 ODA	0.008%	0.018%	0.017%	악화	개선
2.1.1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	10.6%	17.9%	16.7%	개선	악화
2.2.3 여성 빈혈 유병률	12.8%	14.8%	12.7%	개선	개선
2.3.1 노동 생산성(농림축산업)	14,882	17,270	15,496	악화	개선
2.5.2 멸종위험 품종 비율	90%	96%	94%	개선	악화
3.3.5 소외열대질환 인구수	79	2	3	악화	개선
3.5.2 알코올 소비량	8.9리터	8리터	7.8리터	개선	개선
3.8.1 필수보건서비스	82점	~	89점	~	개선
3.a.1 흡연율(매일)	23.2%	14.7%	15.3%	악화	개선
3.c.1 보건의료인력(천 명당 명)	5.5	8.9	9.3	개선	개선
4.1.1 기초학력미달	~	~	~	~	악화
4.3.1 평생교육 참여율	34.4%	32.3%	33.1%	개선	악화
4.4.1 정보통신기술(ICT) 능력	~	~	~	개선	개선
4.6.1 성인의 문해율(언어)	273점	~	249점	~	악화
5.1.1 성평등 법·제도 존재	~	~	85	~	~
5.2.2 직장내 성희롱 피해율(여성)	14.2%	7.9%	6.1%	개선	개선
5.4.1 가사노동시간 비중-남녀격차	12.1%p	8.8%p	7.4%p	개선	개선
5.5.2 여성관리자비율(공공)	13.9%	24.3%	25.4%	개선	개선

번영(Prosperity)	중장기	전기	최근년	최근 변화	중장기 변화
7.2.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(천TOE)	3,570	17,058	18,813	개선	개선
7.3.1 에너지 원단위(TOE/100만)	0.163	0.133	0.133	~	개선
8.1.1 1인당 실질 GDP 성장률	2.9%	1.5%	1.9%	개선	악화
8.5.1 시간당 임금(원)	13,769	22,878	25,156	개선	개선
8.5.2 실업률	3.4%	2.8%	2.8%	~	개선
8.8.1 산업 재해 건수(명)	93,292	136,796	142,771	악화	악화
8.9.2 관광산업 종사자 수(명)	407,884	449,304	449,272	~	개선
9.1.2 승객 및 화물 운송량(억인/km)	4,163	4,833	5,278	~	~
9.2.2 제조업 고용 비율	17.0%	15.6%	15.2%	~	~
9.3.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	5.2%	8.4%	7.9%	악화	개선
9.5.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	3.4%	4.9%	5.0%	개선	개선
9.5.2 인구 천 명당 상근연구원 수	5.8명	9.5명	9.5명	개선	개선
10.1.1 소득 1분위 1인당 가구소득(만원)	847	1,349	1,359	개선	개선
10.4.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	55.5%	59.6%	58.9%	악화	개선
10.5.1 금융건전성지표	11.1%	14.1%	14.7%	개선	개선
10.7.4 난민 인정자 수(명)	94	101	105	개선	개선
11.1.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	16.6%	3.6%	3.8%	악화	개선
11.2.1 대중교통 접근성(저상버스 도입률)	12.8%	38.9%	44.4%	개선	개선
11.6.2 초미세먼지(μg/m3)	26	19	16	개선	개선
11.7.1 1인당 도시공원 면적(천㎡)	8.3	12.6	12.8	개선	개선

지구(Planet)	중장기	전기	최근년	최근 변화	중장기 변화
6.1.1 상수도 보급률	97.9%	99.5%	99.5%	~	개선
6.3.1 하수도 보급률	90.9%	95.4%	95.6%	개선	개선
6.3.2 좋은 수질 달성률	87.3%	93.3%	93.6%	개선	개선
6.4.1 물 이용 효율성(달리/㎡)	42.81	56.42	58.27	개선	개선
12.2.2 국가자원소비량(톤)	8.90억	8.85억	8.63억	개선	개선
12.3.1 음식물 폐기물 종발생량(톤)	494만	555만	537만	개선	악화
12.4.2 유허폐기물 발생량(톤)	366만	617만	614만	개선	악화
12.5.1 국가 재활용	68.8%	77.9%	78.1%	개선	개선
13.1.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·실종자 수(명)	78	140	121	개선	악화
11.5.2 재난으로 인한 직접 경제적 손실(백만 원)	39,091	974,340	910,713	개선	악화
13.2.1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	~	~	~	개선	개선
13.2.2 온실가스 배출량(백만 톤 CO ₂ -eq)	720.61	722.03	707.20	개선	개선
14.4.1 연근해어업 생산량(톤)	124만	95만	84만	악화	악화
14.5.1 생물다양성 보호지역(해양)	38.53%	42.95%	42.95%	~	개선
14.6.1 불법비보고·비규제 어업 근절(건)	1,817	1,267	931	개선	개선
14.c.1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협정 이행	~	~	~	개선	개선
15.1.2 생물다양성 보호지역(육상)	28.09%	40.02%	40.68%	개선	개선
15.1.2 생물다양성 보호지역(담수)	29.52%	36.64%	36.64%	~	개선
15.4.1 생물다양성 보호지역(산악)	18.43%	20.21%	20.21%	~	개선
15.9.1 (a) 국가 생물다양성 계획 (b) 환경경제계정 구현	~	~	~	개선	개선
15.a.1 생물 다양성 ODA(백만 달러)	13.11	271.51	367.92	개선	개선

평화(Peace)와 협력(Partnership)	중장기	전기	최근년	최근 변화	중장기 변화
16.1.1 살인범죄 발생비(10만 명당 건)	0.85	0.54	0.54	~	개선
16.2.2 인신매매 등 범죄(건)	637	582	499	개선	개선
16.5.2 공동의 뇌물 경험률(기업)	4.0%	2.3%	1.6%	개선	개선
16.7.2 정치적 효능감	2.9점	2.6점	2.5점	악화	악화
16.b.1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률	28.2%	20.8%	14.3%	개선	개선
17.1.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	30.1%	37.0%	34.8%	악화	개선
17.1.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중당 비율	73.9%	61.8%	55.2%	악화	악화
17.2.1 ODA 규모(백만 달러)	2,147	3,160	4,032	개선	개선
17.3.2 총 GDP 중 송금액	0.5%	0.5%	0.4%	개선	개선